

# “올 여름, 목포·여수서 이색 요트체험 어때요”

## 전남도·전남관광재단 상품출시 요트캠핑·선상 DJ파티 등 다양

항구도시 목포시와 핫플레이스 여수시에서 이색 요트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트에서 캠핑, DJ파티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관을 활용한 요트 관광상품은 지난 5월 지역 요트·마리나 체험 운영사

를 대상으로 공모 했으며 목포시와 여수시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선정된 뒤 지난 8일부터 첫 운영을 시작했다.

목포에서는 1박 2일 해상 요트캠핑을 체험할 수 있다. 전문 항해사와 함께 도초도, 외달도 등 다도해와 기암괴석을 가까이 접근해 감상할 수 있다.

선상 BBQ파티, 흥어썰기체험, 드론나이트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요트체험이 가능하다.

삼학도 목포 요트·마리나에서 진행되는 퍼블릭 선셋투어, 1박 2일 요트캠핑의 경우 평일(월~목)에 진행된다.

핫플레이스 여수에서는 요트에서 DJ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수 있는 선상 DJ파티가 마련됐다. 2시간 가량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돌산도에서 오동도까지 진행된다.

이 파티는 여수 대표 요트체험 상품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을을 바라보며 즐기는 낭만적인 선셋투어, 야간 불꽃투어 등 다양한 요트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선상 DJ파티 프로그램은 매주 금·일과 공유일 오후7시50분 돌산읍 진도 방파제 인근에서 출항한다. 일몰시간에 따

라 출항시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참가비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관광재단 응복합팀(061-802-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남도와 재단은 해양·마리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해양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매년 특색있는 해양레저 및 요트체험 상품 발굴 및 지원으로 전남 요트 관광 인지도 제고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정리수납 봉사활동 펼쳐 진도군 우렁각시 봉사단

진도군이 재능기부 전문 자원봉사자 ‘우렁각시 봉사단’을 구성해 최근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렁각시 봉사단은 취약계층을 방문, 정돈되지 의류, 물건, 가구 등을 다양한 수납 도구로 용도에 맞게 분류·정리하고 재배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봉사단은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재능자원봉사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리·정돈 뿐 아니라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의류 개기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진도=백재현 기자

##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추가 설치 해남군, 관내 어항 10개소

해남군은 관내 어항 10개소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육상 인양 등 부족한 어촌일손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이동 등에 활용해 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매우 큰 장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3억 7000만원을 투입해 화산면 중정항 등 10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대를 설치했으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어촌계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 수리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다목적인양기 운행 중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목적 인양기 배상책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도가 산자부, 노동부와 함께 21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찾아가는조선업 취업박람회’ 목포서 성황

### 도내45개사 참여·340명 채용

전남도는 산자부, 노동부와 함께 21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사내협력사 등 도내 조선기업 45개사에서 340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 특성화고 6개 학교 150여명, 화순지역 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실

직·이직자들도 조선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았다. 전남조선업도약센터와 중소조선업 구원에서 조선업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업 포토, 직업 심리검사 등 부대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켰다.

직무 직종 동영상상을 상영하고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여 조선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람회를 통해 채용하지

못한 기업과 구직자는 전남조선업도약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통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조선업은 수주량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일자리 매칭이 이뤄져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신안서 ‘월드 바둑 챔피언십’ 8개국 레전드 출전

신안군은 ‘제4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지난 20일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자문면 ‘라마다&씨원 리조트’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해까지 ‘1004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로 열렸으나 올해는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란 대회명으로 새로이 출발했다.

(재)한국기원 주최, 한국기원·신안군 바둑협회가 주관하고 전남도와 신안군이 후원하는 대회는 참가국도 이전 4개국에서 8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미국·네덜란드·호주·태국)으로 확대해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위상을 높였다.

또 신안이 낳은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세돌 국수의 친형인 이상훈 9단도 출전한다.

무엇보다 한국 레전드 4인방인 조훈현·서봉수·유창혁·이창호를 비롯해 중국의 위빈·뤄시허,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요다 노리토, 대만의 왕리청 등 세계 바둑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프로기사 이영신, 윤영민의 대국 해설도 함께 진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한국 바둑 발전을 위해 각종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방과 후 바둑교실 등을 운영, 바둑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수국축제기간 떡깨비 주문시 할인

### 30일~7월2일 할인쿠폰 지급

강진군이 수국길 축제 기간에 맞춰 ‘떡깨비’로 주문 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강진군은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열리는 강진군 수국길축제와 연계해 공공배달앱 떡깨비 5000원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는 떡깨비에서 축제 기간 1만 5000원 이상 배달 주문 또는 포장시 5000원 할인쿠폰이 매일 제공된다.

가맹점에서 발행한 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하고 주말 배달비 3000원 할인쿠폰까지 가능해 최대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떡깨비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구입

시 받는 10% 할인까지 고려하면 혜택은 더욱 크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떡깨비는 입소문을 타고 알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13일 기준 누적 주문수는 1만7273건으로 결제금액은 4억2000만원을 돌파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6.8~15%), 입점비,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한 자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 강진 보은산 ‘별모양 나뭇가지’ 새로운 볼거리·포토존 예감



강진 보은산을 찾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 화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은산 V랜드 고성사 인근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에 큰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얽히고설키며 만들어진 별 모양의 포토존이 한 군민의 제보로 만들어졌다. 잎사귀가 엮여낸 별 모양은 운동기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부터 ‘물, 숲 강진의 여름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강진군 수국 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는 가운데 나무별 포토존은 특별한 이미지로, SNS 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진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김윤복 기자

## 영암군, 26~30일 4개 정수시설 위생관리 강화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6~30일 4개 정수시설의 유충 유입 차단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정수시설 내 유충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충 차단시설과 정수 공정 점검, 시설 안팎 청결작업 등이다.

앞서 영암군은 유충 유입 차단을 위해 정수장 4개소의 개방형 여과지 시설을 밀폐구조물로 변경한 바 있다.

시설 내 유충 차단망과 감시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정수지와 배수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오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